

로컬스토리

군산시, 희망스터디사업으로 학습기회·특기적성 교육 제공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군산시 '희망스터디 사업'이 추진된다.

군산시는 가정형편상 학원수강이 어려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중학생 125명에게 교과목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희망스터디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2016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수강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운영한다.

학원비는 군산시가 50%를 지원하고 학생 본인부담금 10%, 학원후원금 40% 부담을 원칙으로 17가구당 1명을 지원하며 1인당 월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희망스터디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학원에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표창

군산시가 식약처 주관 지난 2016년도 식품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식품안전관리 분야 평가항목은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식중독 예방교육·홍보 실적 ▲현장보고장비(태블릿PC) 활용률 ▲업체 점검률 및 적발률 ▲허위·과대광고 평균 조사일수 등 총 3개 영역 11개 지표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했다.

군산시는 2774개소 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취약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오숙자 군산시 식품위생과장은 "올해도 눈높이 맞춤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나눔 캠페인 동참 이어져

새해에도 군산시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성금·성품 및 장학금 전달이 이어져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군산도시가스(대표 윤인식)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따뜻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성금 2000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이 밖에도 ▲(주)군산서해환경 성금 1000만원 ▲군산애환동행본부 성금 300만원 ▲현대세울아트 주민일동 성금 20만원 ▲화진마트 성금 100만원 ▲방주교회 백미 10kg 50포(110만원 상당) ▲임피제일교회 성금 200만원과 양곡(20kg) 28포 ▲육산복지장학회 장학금 320만원 ▲모아치과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성품 및 장학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와 긴급생계비·의료비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해수청, 해양강좌 성료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에서 지난해 실시한 16년 해양강좌(해양일련 바다특목)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해양강좌 '해양일련 바다특목'은 해양 분야 전문가 강의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강좌에는 전북 도내 초·중·고생 및 시민 등 총 1600여명이 참여했으며, 강연 진행이나 내용의 참신성 등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청 관계자는 "올해에도 가족이 함께하는 해양강좌를 운영하여 자녀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올해 시정의 중점 '경제 활성화·관광 광역화·어린이 행복'

군산시, 제2의 도약 모색

지난 2016년 한 해 군산시는 시민과 함께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의 공동목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뤘다.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재정적으로 성장하며 새만금 남북2축도로 등 1조 40억 원의 국비 확보로 2년 연속 국가 예산 1조원을 달성했고, 자체예산도 결산추경 기준 1조 445억원으로 예산 1조원 시대를 공표했다.

특히 군산시간여행축제와 함께 고군산연결도로 임시개통에 따른 97만명의 방문객과 근대역사박물관의 100만명 관람객은 '군산 200만 관광객 시대'를 개막했으며, 민선6기와 함께 선포한 어린이 행복도시 군산은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어 시의 새로운 도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2017년 군산시는 세계적 경기침체와 정치적 불안 등 위기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군산을 창출하기 위한 기회로 삼고, 민선6기 주요현안이 보다 탄실하게 영끌어갈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어린이행복'에 시정의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군산조선소 정상가동을 위해 전라북도를 비롯한 정치권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및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산업 유치 및 R&D 인프라 구축 등 신성장동력 육성과 함께 새만금 조기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 특화부두 개발 및 항만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지역 우수기업 지원,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에 힘쓸 것이다.

또 고군산연결도로와 동백대교 완공을 기회로 선유도 내부 관광로 개설, 신시·무녀도 관광개발 시설사업 추진,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의 조속한 진행으로 섬 관광을 육성

하고 근대마을 조성 등 관광 콘텐츠 개발과 함께 내항주변 야간경관 조성 및 스마트 투어 앱 등 관광의 소프트웨어를 확충하여 인근 지자체 지역관광의 축을 군산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가 행복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위해 정책의 전 과정에 아동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아동권리 보장 조성, 아동학대예방 종합계획 추진 등 어린이의 참여, 안전, 건강 등 행복증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정책 추진한다.

더불어 군산전북대병원을 포함한 의료시설, 복지서비스, 도시환경 등 수준 높은 정주여건 마련과 사회문화 조성으로 도시의 품격을 높여 사회적 약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나아가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강화

업체 경영안정·고용창출·주민 소득증대 도모... 최대 2억원 보조

익산시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익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익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2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고 고용인원 2명 이상인 업체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도록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수출실적이 우수한 업체, 특화·첨단산업 개발업체, 기술 집약적 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계획입

지 입주업체, 주민 소득증대와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등이다.

특히 향토산업인 귀금속·석재 산업 육성을 위한 귀금속 생산·개발육성업체와 우수 석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다만 자금 지원결정을 받아 대출을 받고 있는 업체, 대출만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3회이상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최고 2억원의 운영자금의 융자분을 지원하며 융자는 2년 거치 일시 상환해야 한다.

시는 융자분에 대해 일반기업 2%,

신규 우수중소기업 3%, 우수기업 2%, 신규 여성기업 3%, 여성기업 2%, 신규 여성우수중소기업 4%, 여성우수중소기업 2%를 초과보조한다.

지원은 1월부터 매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익산지역의 중소기업이 업체 운영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수월하게 융자를 받고 시에서 이자분을 지원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이 활성화되고 주민 일자리가 늘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전라주정 정상가동 위해 발 벗고 나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익산시 마포에 소재한 (주)전라주정 대표를 만나 익산공장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정상가동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정현에탄올은 지난해 5월 하이틴로 홀딩스로부터 전라주정 지분 100%를 인수하고, 경영 효율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흡수합병(합병기일 2017.2.28.)하고 마동소재 (주)전라주정 익산공장을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주)전라주정은 1965년 설립하여 희석식 소주를 만드는 원로인 주정 제조사업체로서 4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매년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을 익산시에 기부해 오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전 직원이 마동공원 우수저류조, 골목길 등을 청소하며 봉사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등 보배시절부터 지역민들과 함께한 항토기업이다.

그동안 익산시에서는 (주)전라주정이 경상도 업체로 매각이 추진되는 과정

에서 서울 본사를 방문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도내 업체로 매각하되 직원들의 고용승계 방침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날 정현을 시장의 (주)전라주정 익산공장의 정상가동 요청에 대해 (주)정현에탄올과 합병을 총괄하고 있는 (주)전라주정 조영석 대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하여 가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기업들 투자 잇따라

익산지역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들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기업 분야에 (주)의 자회사인 '순수분(주)'와 '하루의 아침', '농업회사법인 청하식품(주)'가 식품클러스터 입주·분양계약을

했다. 이들 기업의 계약 체결로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분양공고(81만5600㎡) 면적 대비 30.2%가 분양됐다.

순수분은 본 죽으로 잘알려진 본 아이에프의 자회사로 '아침엔 본 죽', '베이비 본 죽' 등 기능성 죽 제품 브랜드를 운영하며 대한민국 간편 가정식 시장을 선도해왔다.

하루의 아침은 다기능 용기를 이용한 도시락 포장·배송을 통해 위탁급식 및 급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청하식품은 매추리알을 활용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립하게 되어 생산품은 국내와 중국 등에 판매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기관장 신년사

위기를 곧 군산의 새로운 기회로
문동신 군산시장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녘의 울음으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듯이 부지런한 땀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지는 새로운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우려라는 국격적, 지역적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군산시민 여러분과 맡은바 업무에서 최선을 다해 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2016년은 오랜 숙원이었던 군산전북대병

원 부지확정, 페이퍼코리아 본격 이전,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 완공과 함께 200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 품격있는 도시로의 교두보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희망찬 2017년에는 같은 배를 타고 고난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 희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자세로 위기를 곧 군산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경제활성화, 관광광역화, 어린이 행복을 최우선으로 품격이 넘치는 도시, 100세 건강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활력있는 농어촌, 돈 버는 농업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군산시를 사랑해 주는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 희망찬 군산에서 우리 모두 큰 보람과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시민 섬기는 열린의회로 거듭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여름 속에서 빛의 도래를 알리며 만물과 영혼을 깨운다는 붉은 닭띠의 해입니다.

총명하고 예지능력이 뛰어난 닭의 기운을 받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산시의회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국내외 정치뿐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군산시민 모두 작은 기쁨들이 큰 행복을 이루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큰 타격을 주는 등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터널도 그 끝에는 밝은 빛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군산시 30만 시민들이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면 군산시는 한층 더 밝고 희망찬 미래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며, 시민들과의 신뢰를 지키는 수준 높은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군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군산시민 모두 작은 기쁨들이 큰 행복을 이루는 멋진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실있는 운영으로 사랑받는 의회 만들 것
소병홍 익산시의회 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병신년 한해도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희망 찬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지난 한해도 익산시의회를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각종 재난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으며, 국내에서도 시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최후의 개

70만명 150개 기업체 유치를 목표로 힘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KTX 호남고속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좁혀지고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되는 고속철도 시대를 맞았으며, 최근에는 수서발 SRT운행으로 호남철도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분야 우수지자체로 2년 연속 상을 수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감동복지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선진도시로 면모를 갖추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익산은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있기까지는 익산을 사랑하는 모두의 노력과 꿈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더욱 내실 있는 의회 운영으로 익산시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게 하길 바라며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익산=장양원 기자